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                     |    |
|---------------------|----|
| I. 심사경과 .....       | 1  |
| II. 전문위원 검토보고 ..... | 2  |
| III. 대체토론 요지 .....  | 33 |
| IV. 심사결과 .....      | 33 |
| V. 부대의견 .....       | 33 |



#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 27.

2. 회부일자 : 2025. 5. 28.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8. 2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8. 27.)

- 상정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 11. 10.)

-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원안의결)

제1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11. 12.)

- 상정, 의결(원안의결)

## Ⅱ.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이복우)

### 1 전반적인 경영 지표 악화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2022년 이후 3년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도 당기순손실이 735억 발생하여 경영지표가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경영지표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가. 수익성지표 분석

- KBS의 2024년 매출액 순이익률은 - 5.7%,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 11.5%, 총자산 순이익률은 - 6.3%로, 전년도 대비 각각 1.7%p, 3.6%p, 2.0%p 감소하였음.
- 2024년 지상파 방송 3사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 -1.7%, 자기자본 순이익률 -4.4%, 총자산순이익률 -2.3%로 전체적으로 수익성 지표가 감소 추세이나, KBS는 지상파 3사 가운데서도 수익성 지표가 가장 낮은 수준임.

<지상파 3사의 수익성 지표(2022~2024년)>

(단위: %, % p)

| 구분           | 2024년 |         |     |      |        | 2023년 |      |     | 2022년 |     |      |
|--------------|-------|---------|-----|------|--------|-------|------|-----|-------|-----|------|
|              | KBS   | (전년 대비) | MBC | SBS  | 방송사 평균 | KBS   | MBC  | SBS | KBS   | MBC | SBS  |
| 매출액<br>순이익률  | -5.7  | -1.7    | 2.9 | -2.3 | -1.7   | -4.0  | 13.0 | 3.6 | -0.8  | 0.7 | 11.9 |
| 자기자본<br>순이익률 | -11.5 | -3.6    | 0.9 | -2.5 | -4.4   | -7.9  | 4.3  | 4.3 | -1.5  | 0.3 | 17.0 |
| 총자산<br>순이익률  | -6.3  | -2.0    | 0.9 | -1.6 | -2.3   | -4.3  | 4.0  | 2.7 | -0.9  | 0.2 | 9.8  |

주: 1)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2)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3)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자료: KBS, MBC, SBS

- 이러한 수익성 지표의 악화는 2024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신료수입, 방송광고수입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매출액(1조 2,974억원)이 2023년 대비 891억원 감소하였고,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 관련 비용 증가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2023년 대비 306억원 증가하여 사업손실 881억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은 735억원 발생하였음.

### <KBS의 손익 구조(2021~2024년)>

(단위: 억원)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사업순익  | △71   | △90   | △645  | △881  |
| 사업외순익 | 232   | △86   | 167   | 164   |
| 법인세   | △232  | △58   | 75    | 18    |
| 당기순이익 | 393   | △118  | △553  | △735  |

자료: KBS

- 특히 2022년 이후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후술 하듯 수신료수입 및 방송광고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방송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나. 성장성지표 분석

- KBS의 2024년 성장성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6.5%, 총자산 증가율이 -8.7%, 자기자본증가율이 -9.0%로, 각각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자기자본증가율의 감소는 2024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에서 기인하며, 이는 사업확장적립금에서 보전할 예정임.

**<최근 3년(2022~2024년) KBS의 성장성 지표>**

(단위: %, %p)

| 구 분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전년대비) |
|--------|---------|-------|-------|-------|--------|
| 성장성 지표 | 매출액 증가율 | 1.7   | △6.5  | △6.4  | 0.1    |
|        | 총자산 증가율 | 3.0   | △8.4  | △8.7  | -0.3   |
|        | 자기자본증가율 | △1.4  | △8.5  | △9.0  | -0.5   |

주: 1) 매출액 증가율: 당기말 매출액/전기말 매출액

2)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

3) 자기자본 증가율: 당기말 자기자본/전기말 자기자본

자료: 2024회계연도 KBS 결산서

○ KBS의 자산 중 유동자산은 2,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755억원(25.1%) 감소하였고, 비유동자산은 9,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50억원(3.6%) 감소하였음.

- 유동자산 항목의 경우, 2022년부터 지연되었던 재송신료 단가 협상이 완료되고 정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자산 증가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였음.
- 비유동자산 항목의 경우, 투자자산은 지분법손익 반영 등으로 93억원(2.4%) 증가하였고, 유형자산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등으로 378억원(7.1%) 감소하였음.

<최근 3년의 자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2022년  | 2023년(a) | 2024년(b) | 증감(b-a) |
|-------------|--------|----------|----------|---------|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417    | 385      | 648      | 263     |
| 매출채권        | 2,898  | 2,056    | 1,385    | △671    |
| 기타당좌자산      | 515    | 494      | 162      | △332    |
| 단기투자자산      | -      | -        | -        | -       |
| 재고자산        | 91     | 76       | 61       | △15     |
| 유동자산 소계     | 3,921  | 3,011    | 2,256    | △755    |
| 투자자산        | 3,953  | 3,942    | 4,035    | 93      |
| 유형자산        | 5,483  | 5,287    | 4,909    | △378    |
| 기타비유동자산     | 595    | 544      | 479      | △65     |
| 비유동자산 소계    | 10,031 | 9,773    | 9,423    | △350    |
| 자산총계        | 13,952 | 12,784   | 11,679   | △1,105  |

자료: 2024회계연도 KBS 결산서

## 다. 생산성지표 분석

- KBS의 2024년 부가가치율은 39.1%, 총자본투자효율은 43.4%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전손실 확대, 인건비 절감 등으로 2024년도 부가가치액<sup>1)</sup> 5,073억원으로 전년도 5,825억원 대비 12.9% 감소한 영향을 받음.
-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1인당 매출액 또한 3억 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KBS의 생산성 지표(2020년~2024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부가가치율    | 49.8  | 45.8  | 40.5  | 42.1  | 39.1  |
| 총자본 투자효율 | 53.3  | 49.3  | 43.1  | 45.7  | 43.4  |
| 1인당 매출액  | 299   | 333   | 357   | 343   | 342   |

주: 1)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매출액) x 100

2) 총자본 투자효율 : (부가가치액/총자본) x 100

자료: 2024회계연도 KBS 결산서

1) 부가가치액=세전이익+인건비+금융비용(이자비용-이자수익)+임차료+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 라. 안정성지표 분석

- KBS의 2024년 유동비율은 175.9%, 당좌비율은 171.1%, 부채비율은 83.1%로 전년보다 안정성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는데, 이는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이 2023년도에 비해 감소(각각 25.1%와 25.2%)한 것에 기인함.
-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은 90.6%로 전년보다 상승하였음.

### <KBS의 안정성 지표(2019년~2024년)>

(단위: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유동비율    | 146.9 | 183.6 | 229.3 | 201.3 | 193.0 | 175.9 |
| 당좌비율    | 143.6 | 180.4 | 226.2 | 196.7 | 188.1 | 171.1 |
| 고정장기적합률 | 90.7  | 86.8  | 80.3  | 83.6  | 87.1  | 90.6  |
| 부채비율    | 87.1  | 76.4  | 74.3  | 82.1  | 82.3  | 83.1  |

주: 1) 유동비율<sup>2)</sup>: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2) 당좌비율<sup>3)</sup>: (당좌자산/유동부채)× 100  
3) 고정장기적합률<sup>4)</sup>: [비유동자산/(자기자본+비유동부채)]× 100  
4) 부채비율<sup>5)</sup>: (부채총계/자기자본)× 100  
자료: KBS

- 
- 2)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보유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3) 당좌비율은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즉각적인 지급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임.
  - 4) 고정장기적합률은 보유자산의 고정화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우량한 기업임.
  - 5) 부채비율은 부채 대 자본의 비율로 타인 자본에 대한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음.

## 마. 종합 분석

- KBS의 2024년 수익성 지표를 보면, 총자산 순이익률은 - 6.3%,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 11.5%, 매출액 순이익률은 - 5.7%로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음.
- 다음으로 성장성 지표를 보면, 매출액증가율은 - 6.4%, 총자산증가율은 - 8.7%, 자기자본증가율은 - 9.0%로, 전년보다 각각 감소하였음.
- 다음으로,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율과 총자본투자효율을 살펴보면, 각각 39.1%, 43.4%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음.
- 마지막으로, 안정성지표인 유동비율은 175.9%, 당좌비율은 171.1%, 고정장기적합률은 90.6%, 부채비율은 83.1%로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
- 한국방송공사는 2022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역시 당기순손실이 735억 발생하여 경영지표가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KBS는 2024년 영업손실을 공사의 정관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할 예정이나(p.14 참조), 손실이 지속될 경우 자본잠식 및 공영방송 존립 위기가 우려되므로<sup>6)</sup>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sup>7)</sup>

6) KBS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라 손익금 처리 후 이익잉여금 예상 잔액은 3,770억원으로, 2024년 당기순손실이 735억원임을 고려할 때, 매년 유사한 수준의 손실이 지속된다면 약 5~6년 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됨.

7)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심의결과 “한국방송공사는 2023년도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는바, 중장기적인 경영지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회사의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BBC나 NHK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무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 2 (수입) 수신료 통합고지 재도입에 따른 면밀한 준비 필요

- KBS는 수신료수입이 2024년 분리고지 시행 이후 급감한 가운데, 2025년 10월 통합고지 재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과의 협의 및 대응계획이 미비한 상황으로, 고지방식 전환에 따른 징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수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시급함.

- KBS는 「방송법」 제56조<sup>8)</sup>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sup>9)</sup>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공사의 경비로 충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2024년 KBS의 수신료 수입은 6,516억원으로 2023년 대비 335억원(△4.9%) 감소함.
- 수신료수입이 KBS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도 결산 기준 48.1%, 2024년도 결산 기준 48.9%로, KBS 총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임.

### 8) 「방송법」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 9)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KBS 수신료수입 현황(2024년)>

(단위: 억원, %)

| 과목       | 2024년<br>예산<br>(A) | 2024년<br>결산<br>(B) | 2023년<br>결산<br>(C) | 예산 대비         |                    | 전기 대비         |                |
|----------|--------------------|--------------------|--------------------|---------------|--------------------|---------------|----------------|
|          |                    |                    |                    | 차이<br>(D=B-A) | 달성(집행)률<br>(E=B÷A) | 차이<br>(F=B-C) | 증감률<br>(G=F÷C) |
| 수신료수입(a) | 5,121              | 6,516              | 6,851              | 1,395         | 127.2              | -335          | △4.9           |
| 총수입(b)   | 13,164             | 13,317             | 14,244             | 153           | 101.2              | -927          | △6.5           |
| 비중(a/b)  | 38.9               | 48.9               | 48.1               | -             | -                  | -             | -              |

자료: KBS

- 2024년 수신료수입이 감소한 것은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sup>10)</sup>으로 수신료 고지방식이 전기요금과의 통합고지에서 분리고지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는 등 수납 이탈이 있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수신료 고지액 대비 수납율은 2022년 100%, 2023년 98%로 매우 높았으나, 분리고지 시행 이후인 2024년 8월 85.6%로 급격히 하락한 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10)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2024년 KBS 수신료 월별 납부 현황>

(단위: 억 원, %)

| 구분  | 고지금액(A) | 수입금액(B) | 수납율(B/A) |
|-----|---------|---------|----------|
| 1월  | 578     | 572     | 98.9%    |
| 2월  | 579     | 550     | 95.0%    |
| 3월  | 578     | 567     | 98.1%    |
| 4월  | 570     | 561     | 98.4%    |
| 5월  | 576     | 556     | 96.4%    |
| 6월  | 569     | 568     | 99.7%    |
| 7월  | 572     | 559     | 97.8%    |
| 8월  | 578     | 494     | 85.6%    |
| 9월  | 581     | 522     | 89.8%    |
| 10월 | 580     | 523     | 90.1%    |
| 11월 | 572     | 521     | 91.1%    |
| 12월 | 571     | 524     | 91.8%    |
| 합 계 | 6,904   | 6,517   | 94.4%    |

자료: KBS

- 이에, 2025년 4월 「방송법」 개정<sup>11)</sup>에 따라 10월부터 수신료 통합고지가 재도입될 예정으로 수신료수입 감소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신료 고지방식의 단기간 내 변경에 따른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 준비가 시급함.

11)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시행일: 2025. 10. 23.]

- 이에 대하여 KBS는 통합징수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제도 변경에 대비한 인력운영계획, 민원 콜센터 확대,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2025년 7월 기준 통합징수 재개 관련 한국전력공사와의 업무 확정 등 KBS의 세부 운영계획이 여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는 10월 고지방식 전환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KBS는 통합고지 방식 재도입에 대비하여 한국전력과의 업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신료 관리, 민원 대응 조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고지방식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3 (수입)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광고수입 감소 대응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시장 환경변화로 방송광고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타 지상파 방송사 대비 경쟁력도 약화 되고 있으므로, 광고수익 회복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KBS의 수입 중 방송광고수입은 지상파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활용한 상업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4년은 전년 대비 290억원 감소(△14.7%)한 1,677억의 수입이 발생하였음.

#### <KBS 방송광고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 과목     | 2024년<br>예산<br>(A) | 2024년<br>결산<br>(B) | 2023년<br>결산<br>(C) | 예산 대비         |                    | 전기 대비         |                |
|--------|--------------------|--------------------|--------------------|---------------|--------------------|---------------|----------------|
|        |                    |                    |                    | 차이<br>(D=B-A) | 달성(집행)률<br>(E=B÷A) | 차이<br>(F=B-C) | 증감률<br>(G=F÷C) |
| 방송광고수입 | 2,580              | 1,677              | 1,967              | -903          | 65.0               | -290          | △14.7          |

자료: KBS

- 연도별 KBS의 방송광고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중간광고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2022년 2,642억원(전년 대비 63억원 감, △2.3%), 2023년 1,967억원(전년 대비 675억원 감, △25.5%), 2024년 1,677억원(전년 대비 290억원 감, △14.7%)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KBS의 방송광고수입 추이>

(단위: 억원, %)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방송광고수입 | 2,319 | 2,705 | 2,642 | 1,967  | 1,677  |
| 증감     | -     | 386   | △63   | △675   | △290   |
| 증감률    | -     | 16.6% | △2.3% | △25.5% | △14.7% |

자료: KBS

- 이러한 KBS의 방송광고수입 감소는 OTT 서비스 확대 등 미디어 시장 환경변화로 지상파TV를 포함한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전반적인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의 '20~'24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2%, 8.5%로 증가 추세인 반면, 방송광고시장의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4.1%로 감소 추세임.
- 최근 5년간(2020~2024년) 방송광고 매출을 살펴보면, 2021년 중간광고 도입으로 일시적 증가를 보였으나, 광고주의 수요가 디지털 광고시장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2022년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상파TV 광고시장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방송통신 매체별 광고매출(광고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br>(추정치) | '20~'24<br>연평균 성장률 |
|---------|----------|----------|----------|---------|----------------|--------------------|
| 방송      | 27,172   | 31,486   | 30,830   | 24,983  | 22,964         | △4.1%              |
| (지상파TV) | (10,013) | (12,071) | (12,090) | (9,273) | (8,354)        | (△4.4%)            |
| 인쇄      | 19,201   | 20,208   | 21,277   | 20,261  | 20,394         | △1.9%              |
| 인터넷     | 18,394   | 17,797   | 19,027   | 20,766  | 22,556         | 5.2%               |
| 모바일     | 56,890   | 62,239   | 68,035   | 72,887  | 78,802         | 8.5%               |
| 기타      | 11,877   | 14,399   | 16,652   | 17,598  | 18,002         | 11.0%              |

자료: 202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5.6.) 재구성

주1) 방송은 재산상황 조사/ 인쇄, 인터넷, 모바일 등 광고비는 KOBACO의 방송통신광고비조사(2024년) 참조

○ 한편, KBS의 방송광고수입은 방송광고시장의 절대 규모 감소뿐 아니라 타 방송사 대비 콘텐츠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지상파TV 광고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KBS의 방송광고 수입은 지상파 방송광고 전체 수입 감소(△9.9%)를 상회하는 14.7% 감소한 1,67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방송 3사(KBS, MBC, SBS) 중 광고수입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21.9%→21.2%→20.1%)에 있음.

- 이는 KBS가 타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변화하는 광고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KBS의 경쟁력이 타 방송사 대비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광고수입 비교>

(단위: 억원)

| 구 분   |      | 지상파방송사<br>광고수입(A) | MBC    | SBS    | KBS         |              |
|-------|------|-------------------|--------|--------|-------------|--------------|
|       |      |                   |        |        | 광고수입<br>(B) | 점유율<br>(B/A) |
| 2022년 | 광고수입 | 12,090            | 2,760  | 3,701  | 2,642       | 21.9%        |
|       | 증감률  | 0.2%              | 1.7%   | 4.7%   | △2.3%       |              |
| 2023년 | 광고수입 | 9,273             | 2,028  | 2,900  | 1,967       | 21.2%        |
|       | 증감률  | △23.3%            | △26.5% | △21.6% | △25.5%      |              |
| 2024년 | 광고수입 | 8,354             | 2,064  | 2,415  | 1,677       | 20.1%        |
|       | 증감률  | △9.9%             | 1.8%   | △16.7% | △14.7%      |              |

자료: 202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5.6.) 재구성

- 따라서 미디어 시장 환경변화로 방송광고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는 광고수익 회복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sup>12)</sup>

12)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심의결과 “한국방송공사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수입 감소 전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 4 (수입) 지속되는 콘텐츠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수익 기반 개선 필요

- 한국방송공사의 콘텐츠판매수입은 산업 전반의 성장세와 달리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제작비 감축과 권리 확보 한계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대응전략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콘텐츠 수익 기반 회복을 위해 제작비 확보 및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BS의 기타방송사업수입은 콘텐츠판매수입, 프로그램 협찬 및 캠페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2024년도 기타방송사업수입 4,513억원은 예산액 4,896억원보다 383억원 미달한 수준이고, 2023년도 결산 4,748억원보다 235억원(△4.9%) 감소한 수준임.

##### <KBS 기타방송사업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 과목       | 2024년<br>예산<br>(A) | 2024년<br>결산<br>(B) | 2023년<br>결산<br>(C) | 예산 대비         |                    | 전기 대비         |                |
|----------|--------------------|--------------------|--------------------|---------------|--------------------|---------------|----------------|
|          |                    |                    |                    | 차이<br>(D=B-A) | 달성(집행)률<br>(E=B÷A) | 차이<br>(F=B-C) | 증감률<br>(G=F÷C) |
| 기타방송사업수입 | 4,896              | 4,513              | 4,748              | -383          | 92.2               | -235          | △4.9           |

자료: KBS

- 기타방송사업수입은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이는 전체 수입중 가장 높은 비중(2024년 기준 76.9%)을 차지하는 콘텐츠 판매수입의 하락이 주요 원인임<sup>13)</sup>.

13) 협찬 및 캠페인 수익은 '22 715억원→'23년 743억원→'24년 808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3년 KBS의 기타방송사업수입 현황 및 콘텐츠판매수입 비중>

(단위: 억원, %)

| 구 분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기타방송사업수입  | 4,934 |       | 4,748 |       | 4,513 |       |
| - 콘텐츠판매수입 | 3,872 | 78.5% | 3,780 | 79.6% | 3,472 | 76.9% |

자료: KBS

- KBS의 콘텐츠판매수입은 2022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감소폭도 2023년 △92억원, 2024년 △30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24년에는 국내(△98억 원)보다 해외 콘텐츠판매수입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전년 대비 210억 원(△35.2%) 감소한 387억 원을 기록하여 최근 6년 내 최저 수준임.

<KBS 콘텐츠 국내외 콘텐츠판매수입 추이(2019~2024)>

(단위: 억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국내 | 2,680 | 2,929 | 3,305 | 3,417 | 3,183 | 3,085 |
| 해외 | 468   | 397   | 472   | 455   | 597   | 387   |
| 총액 | 3,148 | 3,326 | 3,777 | 3,872 | 3,780 | 3,472 |

자료: KBS 202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 이처럼 KBS의 콘텐츠판매수입이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 판매(국내+해외)는 2021년 이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국내 판매액은 2023년에 전년 대비 31.6% 증가(3,543억 → 4,660억원), 해외수출액도 2021년 2억 1,333만 달러에서 2023년 2억 8,023만 달러로 3년 연속 상승함.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국내 판매와 수출 현황(2021~2023년)>

| 구분    | 국내판매(억원) |       |       | 해외수출(단위: 만\$) |        |        |
|-------|----------|-------|-------|---------------|--------|--------|
|       | 2021     | 2022  | 2023  | 2021          | 2022   | 2023   |
| 지상파방송 | 3,781    | 3,543 | 4,660 | 21,333        | 27,124 | 28,023 |

주1) 수출입 총액에는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이외에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DVD 판매, 타임블록, 포맷, 기타가 포함

주2) 2023년부터 통계방식이 변경되어 CP 실적을 분리. 2023년 해외수출 수치는 추이 분석을 위해 이전 기준(지상파+계열CP) 집계액을 표기

자료: 2024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2024년 경영평가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콘텐츠 산업 성장에 역행하는 KBS의 콘텐츠판매수입 감소에 대하여 ‘제작비 상승에 따른 소유권리 유출, TV-VOD 이용률 감소 및 온라인 플랫폼들의 성장에 따라 공사의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음.
- 또한, 최근 KBS는 경영악화로 인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제작비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비를 감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콘텐츠 경쟁력이 저하되고 수익성 악화가 다시 제작비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질 우려도 있음.

- 향후 KBS는 콘텐츠 수익 기반 회복을 위해 제작비 확보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투자 증대, IP 확보)와 산업 구조 변화(OTT 및 디지털 중심으로의 시장재편)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sup>14)</sup>

---

14)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심의결과 “한국방송공사는 다양한 수입원 창출을 위하여 글로벌 OTT를 포함한 콘텐츠 해외판매, 유튜브 운영 등을 통해 수입의 증가와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로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 5 (비용) 매출채권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2024년 KBS의 판매비·관리비는 대손상각비 107억 원 급증으로 전년 대비 306억 원(15.5%) 늘어난바, 대손충당금이 실제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회수관리와 매출채권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KBS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수신료징수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간접비용으로 구성되며, 긴축경영 기조로 전체 총비용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2024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306억 원(15.5%) 증가한 2,279억원이 집행됨.

### <KBS 판매비와 관리비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 과목         | 2024년<br>예산(A) | 2024년<br>결산(B) | 2023년<br>결산(C) | 예산 대비         |                    | 전기 대비         |                |
|------------|----------------|----------------|----------------|---------------|--------------------|---------------|----------------|
|            |                |                |                | 차이<br>(D=B-A) | 달성(집행)률<br>(E=B÷A) | 차이<br>(F=B-C) | 증감률<br>(G=F÷C) |
| 총비용        | 14,595         | 14,052         | 14,797         | -543          | 96.3               | -745          | -5.0           |
| - 판매비와 관리비 | 2,572          | 2,279          | 1,973          | -293          | 88.6               | 306           | 15.5           |

자료: KBS

- 특히, 2024회계연도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항목은 전년 대비 112억원 증가해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67.5%)을 기록하였는데, KBS의 「2024사업

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는 그 주요 원인으로 일회성 대손상각비 107억원 증가를 제시하고 있음.<sup>15)</sup>

#### <2024년 판매비와 관리비 부문별 증감내역>

(단위: 억원, %)

| 구분                | 2024년 | 2023년 | 증감  | 증감률   |
|-------------------|-------|-------|-----|-------|
| 수신료징수비            | 918   | 715   | 203 | 28.4  |
| 광고운영비             | 285   | 377   | -92 | -24.4 |
| 일반관리비             | 278   | 166   | 112 | 67.5  |
| 인건비 <sup>주)</sup> | 763   | 676   | 87  | 12.9  |
| 감가상각비             | 35    | 39    | -4  | -10.3 |
| 합계                | 2,279 | 1,973 | 306 | 15.5  |

자료: 2024회계연도 KBS 결산검사서(감사원)

주) 매출원가에 포함된 인건비 제외

- KBS 최근 3년간 매출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898억원, 2023년 2,056억원, 2024년 1,38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대손상각비는 기존 1억원 수준에서 2024년 107억원으로 급증하여 매출채권 대비 비중도 7.7%로 상승하였음.

15) 참고로, '판매비와 관리비' 부문별 증감액 중 '인건비' 항목이 전년 대비 87억원(12.9%) 증가하였는데, KBS에 따르면 이는 수신료 징수업무로 인해 PD, 기자 등을 사업장으로 파견하였고, 기존에 이들의 인건비는 방송제작비에 해당하여 '방송작업비'(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나, 수신료 징수업무로 업무가 변경되면서 판관비 상 인건비로 항목이 변경되었다는 의견임.

<연도별 대손상각비 규모 및 자산,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

| 회계연도 | 대손상각비(A) | 기말 매출채권(B) | 비중(A/B) |
|------|----------|------------|---------|
| 2022 | 1        | 2,898      | 0.05%   |
| 2023 | 1        | 2,056      | 0.05%   |
| 2024 | 107      | 1,385      | 7.70%   |

자료: KBS

- 대손상각비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의 손실을 반영하는 비용으로, 동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건전성 악화나 회수관리의 미흡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됨.
- KBS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미회수된 채권 중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특정 거래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해당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사실이 반영되며 대규모 대손충당금에 일시에 반영됐고, 결과적으로 대손상각비가 전년 대비 급증하였음.

<최근 5년간 대손충당금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대손충당금 | 10   | 6    | 6    | 6    | 112  |

자료: KBS

- 대손충당금은 이미 사실로 확정된 손실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KBS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실제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회수관리와 매출채권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6 자본예산 집행실적 저조 문제

○ 한국방송공사는 건축경영 기조에 따라 자본예산을 감축하고 집행실적도 저조함에 따라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장기적 성장동력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향후 자본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실제 집행 시에도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KBS는 2024년에 방송시설 구축/고도화, 지역제작시설 확충 등을 위해 자본예산으로 398억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93억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48.5%임.

- KBS는 건축경영을 위하여 2024년도 전년 대비 506억원(△56.0%) 감액된 398억원의 자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93억원만 집행하여 예산대비 205억원(△51.5%)을 감축 집행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인 2023년 결산에 비해서도 277억원(58.9%) 감소한 수치임.

### <KBS 자본예산 예·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2년 |       |       | 2023년 |     |       | 2024년 |     |       |
|-----------------|-------|-------|-------|-------|-----|-------|-------|-----|-------|
|                 | 예산    | 결산    | 집행률   | 예산    | 결산  | 집행률   | 예산    | 결산  | 집행률   |
| 방송시설 구축/고도화     | 617   | 469   | 76.0% | 388   | 224 | 57.7% | 153   | 79  | 51.6% |
| 지역국 청사 신증축      | 0     | 0     | -     | 10    | 0   | 0     | 5     | 0   | 0     |
| 연구개발, 정보화, 뉴미디어 | 125   | 81    | 64.8% | 136   | 89  | 65.4% | 66    | 35  | 53.0% |
| 방송제작장비 보강       | 120   | 107   | 89.2% | 155   | 56  | 36.1% | 60    | 35  | 58.3% |
| 일반시설 보강         | 162   | 119   | 73.5% | 181   | 69  | 38.1% | 56    | 49  | 87.5% |
| 투자외 기타          | 446   | 440   | 98.7% | 3,4   | 32  | 94.1% | 58    | -5  | -8.6% |
| 합계              | 1,470 | 1,216 | 82.7% | 904   | 470 | 52.0% | 398   | 193 | 48.5% |

자료: KBS

- 특히 2023년 이후 KBS의 자본예산 집행 금액이 연간 감가상각비에 미치지 못하고(△135억원) 2024년 △370억원으로 그 차이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장비와 시설이 낡아감에 따라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새로운 투자로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 <자본예산 집행액과 감가상각비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 2022년         |              |             | 2023년         |              |             | 2024년         |              |             |
|----|---------------|--------------|-------------|---------------|--------------|-------------|---------------|--------------|-------------|
|    | 자본예산<br>집행(A) | 감가<br>상각비(B) | 차이<br>(B-A) | 자본예산<br>집행(A) | 감가<br>상각비(B) | 차이<br>(B-A) | 자본예산<br>집행(A) | 감가<br>상각비(B) | 차이<br>(B-A) |
| 금액 | 1,216         | 529          | -687        | 470           | 605          | 135         | 193           | 564          | 370         |

자료: KBS

- 이러한 자산의 노후화는 KBS의 유형자산 추이에도 나타나고 있음.

2024년 KBS의 유형자산은 전년 대비 378억원(△7.1%) 감소한 4,909억원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는 바, 현재 투자수준으로는 노후자산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유자산의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KBS 유형자산 추이>

(단위: 억원,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전년대비   |       |
|--------|--------|--------|--------|--------|--------|--------|-------|
|        |        |        |        |        |        | 증감액    | 증감율   |
| 총자산    | 12,727 | 13,541 | 13,952 | 12,784 | 11,679 | △1,105 | △8.6% |
| - 유형자산 | 5,332  | 5,245  | 5,483  | 5,287  | 4,909  | △378   | △7.1% |

자료: KBS

- 이에 KBS는 자본예산 집행저조 사유로 명예퇴직자 학자금 등 반납액이 예산액 보다 초과 발생하는 한편, 공사의 재정악화와 UHD 정책 지연으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축소·취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KBS의 긴축경영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자본예산의 지속적인 집행실적 감소는 방송시설·장비 등의 노후화를 촉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영방송인 KBS는 재난방송 제공 등 일반 방송사보다 더 높은 공적 책임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인프라가 중요하며,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함.
- 따라서 KBS는 향후 자본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정 금액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 시에도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7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 미달 문제 개선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향후 장애인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고용부담금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이라 함) 제28조16)에 따라 KBS는 장애인고용의 법정 의무가 있고, 동 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을 고려한 KBS의 법정 고용의무 비율은 3.1%이며, 2024년 기준 인원은 132명에 해당함.

- 참고로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17)는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를 규정하여 2024년 기준 3.8%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KBS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1%가 적용된 것임.

### 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17)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그런데 KBS의 장애인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87명으로, 의무고용 달성률이 65.9%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법정고용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임.

- KBS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을 살펴보아도 2021년 (72.1%)을 제외하고 모두 70%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매년 등락을 반복할 뿐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 KBS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의무고용 대상인원(a)      |                |    | 148   | 147   | 142   | 140   | 132   |
| 장애인<br>고용         | 근무<br>인원       | 계  | 84    | 90    | 81    | 76    | 73    |
|                   |                | 경증 | 68    | 74    | 65    | 62    | 59    |
|                   |                | 중증 | 16    | 16    | 16    | 14    | 14    |
|                   | 의무고용비율(법정 31%) |    | 2.1%  | 2.2%  | 2.1%  | 2.0%  | 2.0%  |
|                   | 중증 2배 산정 시(b)  |    | 100   | 106   | 97    | 90    | 87    |
|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b/a) |                |    | 67.6% | 72.1% | 68.3% | 64.3% | 65.9% |

자료: KBS

주)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산정방법(중증장애인은 2배수 계산)에 따름

- 이에 KBS는 「장애인고용법」 제33조<sup>18)</sup>에 따라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며,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34억원에 달함.

### <KBS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계     |
|-----|-------|-------|-------|-------|-------|-------|
| 납부액 | 703   | 556   | 629   | 731   | 744   | 3,363 |

자료: KBS

- KBS는 이에 대해 미디어 산업 특성상 장애인 적합 직무가 많지 않아 공개채용 시 장애인의 지원율이 저조하고,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신규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향후 공개채용 시 장애인 지원자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도 도입 검토 등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KBS와 유사하게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EBS는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왔고, 2024년에는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점을 고려할 때, KBS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함.

18)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최근 5년 EBS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의무고용 대상인원(a)    |               |    | 19     | 22    | 21    | 21    | 20    |
| 장애인<br>고용       | 근무<br>인원      | 계  | 15     | 13    | 15    | 15    | 16    |
|                 |               | 경증 | 9      | 5     | 9     | 9     | 7     |
|                 |               | 중증 | 6      | 8     | 6     | 6     | 9     |
|                 | 중증 2배 산정 시(b) |    | 21     | 21    | 21    | 21    | 25    |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b/a) |               |    | 110.5% | 95.4% | 100%  | 100%  | 125%  |

자료: EBS

- 따라서 KBS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법정 의무 비율 3.1%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고용부담금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sup>19)</sup>

19)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심의결과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 Ⅲ. 대체토론 요지

생략

### Ⅳ. 심사결과

원안의결

### Ⅴ. 부대의견(25건)

1. 한국방송공사는 2022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2024년 73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장기적 경영개선 방안과 성장성 제고 전략을 마련하고, BBC·NHK 사례를 참고하여 재무구조 개선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한다.
2. 한국방송공사는 현금창출력이 지속약화되고 있으므로, 구체적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방송광고 경쟁력 회복 및 디지털 광고시장 대응전략 제시, 해외 콘텐츠 유통망 확충 및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 EBITDA 적자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흐름 관리 및 비상조치 마련 등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혁신 로드맵을 제시한다.
3.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방송광고, 콘텐츠 판매 등 3대 수입원이 모두 감소된 상황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재무건

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4.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통합고지 방식 재도입에 대비하여 한국전력과 업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신료 관리, 민원 대응 조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고지방식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 한국방송공사는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시장 환경변화로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타 지상파 방송사 대비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으므로, 광고수익 회복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실행한다.
6. 한국방송공사는 콘텐츠 수익기반 회복을 위해 제작비 확보와 투자를 확대하여 콘텐츠 경쟁력을 회복하고, 특히 IP 확보와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OTT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실행한다.
7. 한국방송공사는 지속된 적자로 인해 축소경영이 진행되면 콘텐츠 위축 등의 문제가 있고, 실제 2024회계연도에 콘텐츠 판매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BBC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KBS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 한국방송공사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실제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회수관리를 적극 진행하고, 매출채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관리체계 강화와 거래처 신용평가·모니터링을 통해 비용증가요인을 최소화한다.
9. 한국방송공사는 매출채권 관리체계 강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조정, 매출채권 구조 개선 및 채권회수 다변화 방안 마련, 대손상각비 급증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재발방지 대책의 보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10. 한국방송공사는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인프라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전략 수립, 자본예산 편성, 설비의 계획적 유지·보수를 병행할 필요가 있고, 집행 과정에서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11. 한국방송공사는 설비투자가 감가상각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방송설비 및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감가상각비 수준을 충족하는 시설투자 목표치 설정 및 관리 강화, 영업활동 기반 현금창출력 회복과 연계된 재무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12. 한국방송공사는 출자기관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반복 손실이 지속되는 기관에 대한 투자 지속 여부 및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 장부가액이 실질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재평가 제도 개선, OTT·뉴미디어 등 신사업 투자기관의 경영악화에 대비한 위험관리·사전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진행한다.
13. 한국방송공사는 공개채용 시 장애인 초과합격 제도 등 채용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정의무비율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장애인고용 확대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14. 한국방송공사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고용률 제고 방안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 달성을 위한 제도적·관리적 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15. 한국방송공사는 현재처럼 채용이 억제되고 현원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직 기능별 인력 수요를 재분석하고 그에 따라 정원 규모의 재조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16. 한국방송공사는 AI 제작기술 확대를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채용, 장비확충 등을 검토·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다.

17. 한국방송공사는 편성규약, 편성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18. 한국방송공사는 감사실 인사나 감사의 지휘와 관련된 사항 등과 관련해 감사 회피, 독립성 훼손 의혹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제도의 독립성과 적법성을 점검한다.
19. 한국방송공사는 조직개편으로 탐사보도부가 폐지되는 등 탐사보도 기능이 축소된 상황으로, 조직개편안 논의 시 구성원 등과 논의하여 탐사보도부 신설에 대해 검토한다.
20.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헬기가 매각 결정 이후 방치된 상황으로 재난상황이나 취재활동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보관 비용도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으므로 대정비를 통한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21. 한국방송공사는 로이터 보고서에서 KBS 뉴스 신뢰도가 하락하였음에도 대책이 부재하므로, 신뢰 회복 방안과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22.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함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 등을 검토한다.
23. 한국방송공사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한 10대 핵심 전략의 이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경영지표 악화로 나타나는 등 문제

가 있으므로 경영 정상화 등을 검토한다.

24. 한국방송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른 고비용 UHD 투자의 현실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한다.

25. 한국방송공사는 2025년 AI 방송 원년을 선언했으나, 이에 대해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사장 본인 홍보용 이벤트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점검한다.